▮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도구 개발

정 진 욱, 허 경 화, 김 기 웅 / 한국산업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본 연구는 제조업 근로자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대처 행동 양상과 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성 근로자 4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직무스트레스는 Karasek의 JCQ 22 항목을 사용하였고 사회·심리적 건강상태는 GHQ 28항목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근로자가 취하는 대처행동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1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대처행동으로는 "스포츠 활동"이 89.7%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효과는 "여행"이 제일 큰(43.7%) 것으로 나타났다.

2. 범주화된 4개 인자(비활동적 행동, 활동적 행동, 건강행위, 정서적 행동)의 문항간 내적일치도는 0.6~0.8수준으로 판단기준인 0.4보다 높았고, 문항 내적 일치도 성공률은 100%, 문항판별타당도의 성공률도 100%이었다.

3. 측정도구의 범주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 비활동적 행동은 0.77, 활동적 행동은 0.68, 건강행위는 0.63, 정서적 행동은 0.56으로 대처행동 전체의 신뢰도는 0.83이었으며, 인자가 상관분석 결과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도구가 없어서 동시 타당도를 검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근로자에 적합한 대처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그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정하는 추후 연구들이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